

---

1994年度行政事務監査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被監査機關 서울市立大學校

---

日時 1994年11月28日(月) 午後2時  
場所 서울市立大學校會議室

---

(14時 01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喆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地方自治法 第36條同法施行令 第16條와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에 의해서 서울市立大學校에 대한 1994年度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千 百萬 市民의 代辯者로서 그 所任을 다하고자 行政事務監査에 積極 參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本 監査의 受監을 위해 애쓰신 市立大學校 關係公務員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實施되는 1994年度 서울市立大學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는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指導的인 人材 養成을 위한 막중한 業務를 遂行하고, 市立大學校에 대하여 94年度 業務 全般에 걸쳐 충실하고 내실 있게 監査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끌어 주고 잘 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支援하여 명실상부한 名門

大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은 市民의 절대 公僕으로서 本 監査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認知하시어 겸허하고 충실하게 受監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執行部の 宣誓가 있겠습니다. 市立大學校 總長께서는 나오셔서 宣誓文을 낭독하시고 關係公務員은 그 자리에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宣誓後 宣誓文에 署名해서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務處長 金昌碩; (宣誓)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總長께서 먼저 幹部紹介를 하신 후 94年度 全般에 걸친 業務推進現況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大學校의 補職敎授와 主要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敎務處長 金昌碩, 學生處長 朴載福, 企劃室長 崔良秀, 事務局長 玉有榮, 大學院長 成耆撤, 都市行政大學院長 金洪基, 經營大學院長 李東鎬, 産業大學院長 金德燦, 法政大學長 沈定根, 經商大學長 韓圭秀, 工科大學長 張錫潤, 文理科大學長 權五滿, 圖書館員 申範植, 서울學研究所長 安斗淳)

그 옆에는 實務 課長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主要 補職敎授와 學校 幹部에 대한 소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하신데 존경하는 李喆鎬 委員長님과 文化

教育委員 여러분들이 저희學校까지 찾아주신 데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行政事務監査를 받게 된 것을 저희들이 뜻 깊게 생각합니다. 敎職員과 學生 等, 서울시立大學校 家族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委員님들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發展과 世界化를 향한 변화와 改革을 선도하셨으며 서울시民의 한층 높아진 民願事項과 建議事項을 積極 收斂하셔서 定期會는 물론 臨時會를 통해 그 해결에 전력하여 주시었고 市政의 發展과 改善을 위하여 온갖 努力을 경주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만강의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저희 大學도 委員님들의 자상하신 충고와 엄중하신 질책,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 올해에도 敎授와 職員들이 대학의 본래 사명인 敎授와 研究, 社會奉仕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이 하고 나름대로 努力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大學은 다른 大學과 달리 市民의 大學으로서의 役割을 다하기 위해 市政參與는 물론 市民에 대한 기여와 市民을 위한 奉仕에 역점을 두어 대학을 運營하고자 努力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定都600年 紀念事業을 學術적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지난해 設置된 저희大學 附設機關인 서울學研究所를 통하여 서울의 歷史, 文化, 地理, 社會, 環境 等 서울의 성장사와 관련한 學術研究와 國內外 史料探查 作業을 활발히 進行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서울에 대한 市民의 歷史, 文化意識을 높이고자 運營하고 있는 市民文化大學도 3期에 걸쳐 뿌리 찾기 반, 近代史紀行班으로 나누어 330名을 수료시킨 바 있고, 10月末부터 12月 中旬까지 第4期 130名이 積極적으로 서울의 風物을 찾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각 2期에 걸쳐 專門大學院에 社會指導級 人

士들을 대상으로 高位都市政策課程과 最高經營者 課程을 運營, 關聯 政策課題에 관한 深度 있는 研究와 討論의 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大學에서는 현재 大學의 競爭力을 높이고 수준 높은 講義와 研究를 위해 優秀敎員을 확보하기 위한 초빙절차를 95年 2月 任用豫定으로 進行 중에 있고, 아울러 敎授들로 하여금 市政研究課題를 研究토록 하여 市政發展에 이바지하기 위한 學術研究活動을 敎授活動과 더불어 積極 展開하고 있습니다.

또한 美國, 和蘭 등에 敎員 海外研修 9名을 實施 중이며 學術研究活動과 國際交流의 增進을 위해 94 서울學關聯세미나 6回 開催, 서울學國際심포지엄 第8回, 大都市行政심포지엄 등 學術研究 發表會를 開催하였습니다.

또 지난 6月에는 中國 北京聯合大學, 上海財經大學 등과 相互 學術交流 協定書를 교환하는 등 學術研究, 市政發展 및 學術交流를 위한 活動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91年 이후 50%가 增加된 學生들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空間을 마련하기 위해 委員님들의 도움을 받아 綜合 講義棟과 學生寄宿舍에 대한 設計用役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世紀 世界化, 開放化에 대비하고 大學에 제도 예외가 아닌 적자생존의 가혹한 競爭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 大學도 來年 2月末까지 한시적으로 大學改革研究委員會를 運營하여 敎授綜合評價, 大學의 自律化, 大學의 國際競爭力強化 등 大學全般에 걸친 懸案問題를 研究하여 끊임없는 變化를 추구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 大學을 委員님들께서 계속 보살펴주시고 鞭撻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監査도 저희 市立大學校를 아끼시고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잘못된 점은 엄히 꾸짖어 주시고 改善할 점은 빠짐없이 指摘해 주시기를 외람되나마 양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大學에 대한 보다 자세한 事項들에 대해서는 敎務處長, 學生處長, 企劃室長, 事務局長 等 學校幹部들이 여러 委員님들께 報告드리고 質疑에 대하여는 성심껏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行政事務監査를 위해 저희 大學을 방문해 주신 李喆鎬 委員長님과 文化教育委員會 委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大學을 보다 내실 있는 市民의 大學으로 發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敎職員들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業務報告는 지금 그것으로 다 마치는 것입니까?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아닙니다. 企劃室長 崔良秀 敎授가 할 것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繼續해서 業務報告해 주시죠.

○企劃室長 崔良秀; 1994年度 저희 大學의 業務報告를 서울市 李喆鎬 文化教育委員會 委員長님과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을 모신 가운데 報告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報告)

시립대학 주요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94年度 저희 大學의 業務現況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業務報告 分野別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敎務處長님, 報告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質疑에 答辯을 할까요?

○敎務處長 金昌碩; 質疑에 答辯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먼저 委員님들의 諒解가 있으시다면 원만한 監査 進行을 위해서 一括質疑 後 잠시 答辯 資料를 準備할 동안에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을 하는 식으로 監査를 進行하고, 또 부족한 部分은 補充質疑 答辯의 時間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을 듣는 順序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市立大學校 關係公務員의 1994年度 業務推進現況報告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죄송합니다, 委員長님. 제가 諒解말씀을 잠깐 고해 올리겠습니다, 質疑하신 內容에 대해서 答辯하는데 꼭 필요한 分野 補職敎授들은 여기 남고 그 다음에 學長님들이나 大學院長님들은 혹 講義가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退場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喆鎬; 여러 委員님들 관참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李永輔 委員님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輔 委員; 李永輔 委員입니다.

市立大學校 發展에 많은 努力을 하고 계시는 總長님 以下

關係者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質疑를 하겠습니다.

綜合講義棟 建立에서 延面積 2,096坪에 事業費는 72億 8,600萬원으로 坪當 單價는 3,407萬 6,000원이고, 또 學生寄宿舍는 延面積 1,965坪으로 事業費는 58億 3,000萬원으로 坪當 單價는 296萬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建築費도 200萬원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리 연차별로 事業을 한다 하더라도, 또 物價上昇率까지 감안한다 해도 이 坪當 單價가 상식 이상으로 너무 高價金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事業費 算出根據를 提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純建築費는 얼마고, 만약에 施設費나 其他 機資材費까지 포함이 됐다면 그것을 구분해서 算出根據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年 食堂施設 改善에 6,700萬원을 投資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投資內譯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食堂은 敎職員食堂 收容人員이 150名, 學生食堂 收容人員이 400名으로 總 收容人員이 550名으로 22名の 從事員이 1人當 25名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반면 會館 賣店은 收容人員이 135名에 從事員이 2名, 從事員 1人當 收容人員이 67.5名으로 약 2.5倍의 差異가 있습니다. 食堂人員이 다소 過多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民營으로 運營하는 書店, 理髮所, 複寫코너, 眼鏡店, 中央圖書販賣店의 賃貸 保證金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契約期間, 또 契約金額, 契約算定 方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一般 市中 建物과 비해 低價契約을 한 것이 아닌

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豫算執行 部門에 있어 教授研究補助費가 2億 3,125萬원이 執行되고 있습니다, 10月 31日 現在로요. 더 많은 金額인 2億 9,517萬원이 아직 10月 31日 現在 未執行되고 있는데 이 未執行額이 많은 理由가 무엇인가, 今年未까지 執行計劃을 어떻게 하겠다는 答辯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孫馥 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또 市民을 代表해서 몇 가지 大學運營에 관한 政策的인 狀況을 質問하겠습니다.

서울市立大學은 서울特別市 條例에 의해서 設置되었습니다. 서울市立大學이 서울特別市 條例에 의해서 設置된 以後 市政發展에 크게 기여한 事項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市民을 위한 大學으로서 무슨 學術研究나 또는 教養講座 등을 위한 大學運營이었는지 새삼 再考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大學運營에도 하나의 經營마인드 提高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市立大學校 運營에 따른 年間 所要財源을 보면 94年度 一般會計, 즉 서울特別市 財政 151億원과 期成會費, 自體收入이죠 57億원으로 총 208億원이 됩니다.

高等教育인 大學教育은 저는 國家教育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學事管理와 教育方針이 中央政府의 統制에 의해서 大學이 運營되고 있습니다. 學生定員 調整이라든지, 教員擴充問題, 이러한 실정으로 봤을 때 하나의 國家, 즉 中央政府가 教育의 모든 義務를 統制했을 때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源 가지고는 大學을 運營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國·公立 다 마찬가지입니다. 私立大學, 누가 그 큰 돈을 들여 가지고 大學運營을 하겠습니까? 國庫가 다 지금 補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견해로 봤을 때 저는 國庫支援이 필요함을 여기에서 역설하고 싶습니다.

현재 國家가 補助하는 教育財政이 있으면 얼마인가 總長께서는 答辯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國庫가 支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大學運營의 형편으로 봤을 때 물론 授業料도 政府方針에 의존하고 있고 물론 大學守則 基準令도 教育法에 의한 教育部令으로 정해져 있으며 大學의 機能인 學事運營도 자체적으로 決定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아서 앞으로 진짜 市民을 위한 大學인가, 또 市政發展에 하나의 大學으로서의 큰 機能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大學의 質的 向上과 그 運營 側面으로 봤을 때 中央政府의 支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을 때 總長께서는 물론 大學改革研究委員會도 있습니다만 重要的 問題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進路方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市民이나 또는 市民의 代表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市立大學 運營이, 이제 앞으로 地方自治制 실시 이후에 이러한 大學運營이 필요하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도 있고 이것을 차라리 民間團體나 또는 社團化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教育도 물론 地方自治化가 됐습니다. 또 每年 業務報告 때나 監査 때 指摘된 事項입니다만 서울市民의 稅金으로 大學을 運營하는 市立大學으로서 地方自治團體, 즉 地方政府로서의 大學의 特性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첫째 學生問題입니다. 현

재 在學 中인 學生數가 4,648名인데 서울出身 在學生은 1,983名으로 全體의 42.7%이고 地方學生은 2,665名으로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入學基準에는 物理的 制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地方政府로서의 競爭力 強化와 또 市民意識 提高로 봤을 때 서울과 地方學生 選拔에 本委員은 差等を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地方에서는 市立大學을 設立하면서 市民의 子女들에게 큰 惠澤을 부여한 사실을 總長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答辯해 주시고, 本委員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差等問題가 거론되겠습니다만 入學選拔基準에 다소 有利한 配點基準과, 또는 財政自立을 위한 授業料 差等 賦課라든지, 또는 地方政府間의 學生入學에 따른 어떤 地方自治團體長의 財政支援 이러한 것들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總長의 見解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물론 教育의 重要性, 또는 大學運營의 重要性도 重要하겠지만 市民의 意見이 앞으로 가장 많이 收斂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장학금 數의 學生도 살펴보겠습니다. 全體 數의 學生 3,367名 中 서울市民 學生이 1,010名으로 全體의 30%밖에 불과합니다.

또 장학금 種類가 13種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시장장학금, 시장복지장학금, 또는 교직원자녀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는 이 分野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市民의 子女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市長장학금은 各 學科別로 가장 최우수한 학생이 受惠를 받아야 됩니다만 이런 것은 좀 變更돼서 현재의 市長장학

금은 總長장학금으로 名稱을 돌리고요, 그야말로 市民의 子女들이 惠澤받을 수 있는 것은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惠澤받는 장학생이구나 하는 그러한 所屬感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학금제도도 本委員 생각으로는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이상 여섯 가지 장학금 惠澤은 물론 우리 市民의 子女들이 惠澤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總長님의 見解도 밝혀 주시고, 또 배봉장학회란 장학금 種類가 있는데 배봉장학금의 種類는 어떤 內容인지 그것도 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實驗實習機資材가 1994年 11月 12日 現在 大學設置基準令에 보면 2,415種에 7,205點인데 비하여 현재 確保現況은 921種에 4,245點으로 保有率이 金額 基準으로 봤을 때 30.8%에 불과합니다. 터무니없는 부족이죠. 앞으로 물론 시급한 事業도 많고 또는 間接的인 教育投資事業도 많지만 그야말로 現場學習을 위주로 하는 實驗室을 제대로 確保해서 教育의 質을 向上시킬 그러한 意向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30%에 불과한 이러한 實驗實習室으로써 어떻게 學生들을 教育시킬 수 있었는지, 그동안의 教育에 지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수고하셨습니다. 車奉五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車奉五 委員; 車奉五 委員입니다.

먼저 總長님 이하 여러 教授님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 業務報告 內容을 보니까 教授確保率이 52% 내지 54%

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教授로 제대로 大學教育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確保方案 對策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教授들 가운데 學位所有者가 몇 분이나 되고, 國內學位 取得者, 國外學位 取得者率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教授들의 學校別 出身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大學教育의 目標를 眞理, 創造, 奉仕라는 이러한 거대한 3大 目標를 가지고 지금 教育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學生들이 入學하고 卒業할 때 과연 3大 目標에 어느 정도까지 教育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우리 社會에서 다같이 느끼는 바입니다만 모든 어려운 問題들이 教育에 問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말씀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家庭教育, 社會教育, 學校教育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大學教育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 3大 目標를 效率的으로 역시 人格教育을, 技術教育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方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教授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教授님 자신들이 1年 동안에 論文이 몇 편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教授 자신들의 知的向上을 위해서 學校自體에서 무슨 計劃과 目標를 가지고 運營하는 方法이 무엇인지 具體的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朴善童 委員, 質問해 주세요.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李永輔委員님께서 앞서 綜合講義棟, 寄宿舍建築費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設計用役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今年度 市立大學校事業 中 事故移越은 20件입니다. 그중 綜合講義棟과 寄宿舍設計 用役事業의 移越事由가 基本設計審議 補完期間 所要로 인하여 設計期間 不足이라는 說明입니다. 이 두 事業은 93年度 監查資料 提出時 基本設計가 마무리 段階이며 本廳에 審議 依賴를 準備하고 있다는 報告가 있었으며 今年度 業務報告 14쪽에도 94年 5月 30日 設計用役 竣工으로 나와 있습니다. 大學發展의 중요한 점을 차지하는 이러한 事業들을 적기에 마무리 지어야 함에도 시기를 놓치는 것은 두 事業에 대한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說明하여 주시고.

또한 市長福祉장학금의 選拔基準을 보면 서울에 소재하는 高等學校를 졸업하고 直前 學期에 成績順位가 30/100 이내에 該當하는 學生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受惠人員 88名 中 26名만이 서울學生들이 獎學惠澤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2名은 選拔基準과는 달리 他 市·道 學生을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하여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李載震 委員 質問해 주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總長님을 비롯해서 學·處長님들, 學校發展에 많은 수고가 있으십니다. 아까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敎員現況이 여기에 法定定員이 288名인데 현재 51.4%의 敎員確保率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서울大學校 118%, 全北大가 85%, 公州大學은 56.7%, 仁川市立大도 66.8% 保有하고 있는데 왜 市

立大만 이렇게 敎員確保率이 저조한지, 마침 敎員採用을 18名 敎授를 採用하게 된다고 하니깐 반가운 얘기이기는 합니  
다만 어쨌든 이렇게 가장 서울市立大만 이렇게 저조한 敎授  
確保率은 너무 總長님께서 안일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  
다 하는 이야기지만 直接 敎育部하고 교섭이 잘 안 된 것 같  
은데 지금 현재 18名을 採用하고도 많은 敎授現況이 不足하  
기 때문에 최대한 努力을 해 줘야 되겠고.

아울러서 圖書館 藏書保有率도 87.9%인데 지금 현재 敎授  
가 不足하면 圖書라도 적어도 100%를 確保해야 되지 않겠느  
냐, 그런데 圖書藏書 保有도 이렇게 부족한 실정에서 물론  
今年에 8,000卷의 藏書를 購入할 豫算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  
로 해서 만족할 수 있겠는지 하고, 아까 말씀했던 敎授採用  
18名이 人文社會 7名, 理工系 11名인데 具體的인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崔沆洛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崔沆洛 委員; 崔沆洛 委員입니다.

學校施設 擴充計劃 內容을 보면 總合講義棟建立, 寄宿舍建  
立, 研究發展基金造成, 또 理工系 系列 實驗棟 建立, 法政  
學館 建立, 醫科大學設立 해서 큰 事業으로 여섯 가지 事業에  
420餘 億원 정도 豫算이 策定되어 있습니다. 이 420餘 億원  
이라면 今年度 豫算 2倍 이상이 더 되는 金額으로써 거의 다  
보면 96年, 97年, 98年 事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큰 事業,  
이렇게 큰 豫算을 96年, 97年, 98年 이 3個年에 걸쳐서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計劃을 좀 분산  
을 시켜서 年次的으로 事業計劃을 짚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  
는데 이 事業內容에 대해서 總長님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金仁雨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金仁雨 委員; 서울시立大學의 發展을 위해서 애쓰시는 申弘 總長님 이하 教授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名實相符한 綜合大學으로서 昇格을 해서 發展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施設面이나 教授確保 等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事項에 대하여 質疑하고자 합니다.

서울市立大學은 垆地 14萬 3,000坪 위에 建坪 2萬餘 坪인데 이런 教育環境으로 他國立大學과 또는 外國의 大學과 비교해 볼 때 與件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國家競爭力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지, 首都서울의 市立大學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教育研究活動 支援을 보면 外國大學과의 姉妹結緣은 3個 大學이 모두 東歐圈大學과 맺어졌는데 혹시 특별한 理由가 있는지, 왜 우수한 西歐圈 大學과 姉妹結緣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大學研究發展基金 造成目標가 30億원인데 비해서 현재 基金造成 現況과 進陟事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吳柳根 委員님 質問해주세요.

○吳柳根 委員; 吳柳根 委員입니다.

두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지금 市立大學에서 장학금을 支給받은 卒業生 중에서 서울 市에서 勤務하지 않으면서 장학금을 回收하지 못하고 있는 學生이 總 79名 中에서 59名은 還收를 했고, 20名에 해당하

는 6,448萬 4,000원의 장학금을 回收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行政事務監査 때도 역시 이 問題를 指摘을 했더니 保證人을 통해서나 分納形式으로 해서 回收를 꼭 하겠다고 報告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進陟이 전혀 없는 것으로 報告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事項으로 장학금을 받고도 서울시에 勤務를 해서 市政의 發展이라든가, 社會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뭐가 있는 것인지 그 內譯을 좀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을 장학금의 受惠를 받아서 市立大學을 卒業한 사람이 원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分野에 가서 勤務를 한다는 것은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 이전에 人間的인 教育을 받은 도덕성에도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 豫算의 多寡를 막론하고 반드시 回收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市費장학금 支給에 대한 진의와 또 그 目的이 達成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20名씩이나 지금 還收를 못하고 있는 理由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對策이 무엇인지, 또 그 理由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쉽게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의 장학금을 받고 義務期間이 몇 年이며, 또 몇 명이 서울시에 勤務를 하고 있으며 그 職級別로 現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그러면 執行部の 충실한 答辯 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10分 監査中止)

(15時 49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喆鎬;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계속해서 執行部の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여러 委員님들께서 훌륭하신 指摘과 또 예리한 質疑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委員님 여러분들의 質疑하시는 內容을 듣고 앉아 있으려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 올려서 몸 둘 곳을 몰랐습니다. 한 大學을 責任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學校 發展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勞心焦思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主觀的인 생각이고 客觀的으로 보실 때 너무 그 동안에 저와 저희 學校의 關係者들이 너무 안이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反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으신 質問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答辯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質疑를 주시는 過程에서 느낀 뼈저린 反省을 거울삼아서 계속해서 努力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謝罪말씀 올릴 것은 지난번에 93年度 決算報告를 저희들이 올리러 가서, 저는 그 날 다른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도 參席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學校 關係公務員들이 不實하게 答辯을 드려서 委員長님을 비롯하신 委員 여러분들의 震怒를 사시도록 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公式的으로 謝過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停會 前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質問 말씀해 주신 것은 나중에 各 部署 責任者들이 자세하게 答辯해 올리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또 전반적으로, 또 제가 아는 部分은 제가 직접

答辯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答辯말씀 드리는 順序는 便宜上 質疑하신 委員님들 順序대로 말씀을 올리게 됨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輔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事項 中에 綜合講義棟의 事業費 算出根據라든가, 食堂關係, 賃貸帳簿 關係는 나중에 施設課에서 報告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質問해 주신 教授研究費 未執行分에 관한 것은 敎務處長이 다시 자세하게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 教授研究補助費라고 하는 것이 昨年度까지는 지금 豫算에 잡혀있던 것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國·公立大學의 總長들이 教授研究活動 振作을 위해서 수년 동안 研究補助費 100%를 引上해 달라 이렇게 建議를 했던 것이 昨年末에 비로소 豫算에 反映이 됐습니다.

國立大學豫算은 물론 國會에서 反映이 됐습니다만 市立大學인 저희 大學도 昨年에 委員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100%가 引上이 됐습니다. 그것은 正教授 基準으로 해 가지고 每月 14萬원을 研究補助費로 주던 것을 28萬원으로 增額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14萬원씩 주던 것은 每月 定額으로 支給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100% 引上된 것은 成果給으로 支給하도록 그렇게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敎育部에서 國·公立大學 教授研究補助費 支給 規定에 5월에 그 중의 20%를 支給하고 11月末에 나머지 80%를 支給하도록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劃一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象徴적으로나마 教授들의 研究 振作을 위해서, 말하자면 競爭力 涵養을 위해서 成果給으로 해라해서 國·公立大學 總長들이 다소간이라도 差等を 두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머지 80%는 11月末까지 며칠 안

남았습시다만 支給을 하려고 準備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단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1年單位로 끊어지는 것이 아닌 教授님들의 研究實績을 어떻게 差等を 둘 것이냐 하는 것을 總長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政府當局에서는 性格이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象徴的으로라도 差等を 좀 두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諒解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大學도 國立大學의 方針에 비슷하게 支給을 곧 할 豫定입니다. 그래서 아마 80%分이 지금 支給이 안 된 것으로 報告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孫馥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問題는 참으로 죄송스러운 어려운 問題를 質疑를 해 주셨고 저로서도 이 問題를 특히 뼈저리게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大學運營을 市立大學이니까 市政發展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市政課題를 많이 研究를 해서 市政의 合理化와 發展에 기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연하신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大學에 있어서도 經營마인드를 導入을 해서 經營 合理化를 도모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國庫支援, 教育이라고 하는 것이 政府次元의 問題이기 때문에 國庫支援을 얼마나 받으며 앞으로 國庫支援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努力을 하겠느냐 하는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現實的으로 市政發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市政課題를 얼마나 研究해서 市政에 反映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努力은 그 동안에, 특히 최근에 와서 昨年 今年에 努力은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그런 可視的인 效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히 昨年부터 市の 企劃管理室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저희 教授들에게 市로부터 市政課題를 指定을 받아서 저희들이 市政課題를 研究하는 教授들에게는 다른 課題를 研究하는 教授들보다 研究費도 조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研究費 支給對象 教授로 選定을 하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市立大學입니다만 또 서울大學이나 高麗大學이나 다른 大學과 마찬가지로 一般綜合大學이기 때문에 教授들 中에는 市政研究課題를 研究할 수 있는 教授는 制限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哲學教授라든가, 國文科 教授라든가 이런 경우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리가 좀 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市政課題를 研究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制限되어 있다 하는 것을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는 理解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능한 모든 方案을 動員해서 市政發展과 市政課題 研究에 努力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國庫支援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 大學이 國庫에서 支援받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國家에서 과견한 公務員이 몇 있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俸給을 國庫에서 주고 있습니다. 가령, 非常企劃擔當官이랄지, 그 밑에 있는 몇 사람은 國庫에서 支援을 하고 있고 또 政府에서 海外에 보내는 教授를 每年 1·2名 選拔해서 보내는데 그것은 역시 國庫에서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國庫支援을 줄곧 要請했습니다만 今年 10월에 國庫에서 實驗實習機資材 購入에 활용을 하라고 1億 200萬원을 支援을 받은 것이 최근의 예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많은 부탁을 드려서 1億 200萬원을 支援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圖書를 購入하는데 대부분을 지금 策定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中央政府의 支援을 얻기 위해서 繼續해서 努力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關聯된 問題點은 지난번에 行政刷新委員會에서 市立大學의 學事管理權을 中央政府에서 서울시로 옮기도록 基本的인 建議를 한 것이 具體化되는 過程에서 아마 다소간에 解決方案을 좀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行政刷新委員會에서 財政뿐만 아니라 學事管理에 관한 것도 教育部로부터 서울市長한테 옮겨야 되겠다라는 基本的인 建議는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를 具體化하기 위한 部署間의 協助 이런 것이 進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教育部하고, 內務部하고, 總務處하고, 서울시하고 協議過程이 지금 進行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今年初에 금방 될 것처럼 理解가 되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國家的인 懸案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아직 뚜렷한 方向이 提示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훌륭하신 말씀이 계신중에 서울出身 學生이 43%, 地方出身 學生이 57%다, 이것이 사실입니다만 每年 조금씩 改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劃期的으로 改善할 수 있는 方案을 저희들도 찾으려고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만 教育의 機會均等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基本 秩序하고 關聯된 問題때문에 劃期的인 方案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仁川市立大學 이 今年에 새로 市立大學으로 出帆을 하면서 來年度 入學生에 입학금을 仁川市內 居住者들로부터는 받지 않겠다 이런 施策을 決定했습니다. 이 問題도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입학금이라도 받

지 않는 方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大學의 입학금은 國立大學의 입학금에 준하기 때문에 今年度 基準으로 10萬원입니다.

10萬원이고 서울出身 입학생이 1,570名 중에 한 7·800名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래봐야 한 8,000萬원 됩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큼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서울시하고 協議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財政上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만 市立大學에 장학금 受惠率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 今年度 豫算審議하는데 그런 意見을 該當部署에서 提示를 해 와서 저희들은 또 장학금 關係를 責任지고 있는 學生 處長님을 비롯해서 그것을 減額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무진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7·8,000萬원을 免除를 해서 덜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할, 참 今年으로서는 체면이 서지를 않아서 今年에는 그 말씀을 제가 서울시에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훌륭하신 말씀인데 今年에는 안 됐습니다만 來년에는 그런 상징적인 方案이라도 마련하기 위한 努力을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授業料 差等問題라든지, 選拔時에 特惠를 주는 問題를 研究를 해 보겠습니다만 選拔時에 特惠를 주는 問題는 요즘에 大學入試하고 關聯된 國民感情이라든가 하는 것을 비춰 볼 때는 學校單獨으로만 決定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市議會에서도 文化教育 委員會는 물론이시고 本會議에서도 이런 問題를 좀 자주 提起를 해 주시면 우리 市民들은 물론이고 우리 大學에 學生을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國民들의 意識을 조금씩 바꾸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장학생이 서울出身 學生 중에서 30%에 불과한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孫委員님 指摘이 있으셨습니다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學校에 아주 참 아픈 현상입니다만 실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 올립니다. 서울 地域의 學生들은 우수한 學生들이 아직까지는 서울시立大學校에 오는 것을 그렇게 選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大學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私立大學하고 우리 大學하고 같이 둘을 놓고 보면 學校規模가 큰 私立大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 그래도 中産層 이상의 學生들을 가진 가정의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저희 大學의 歷史적인 그런 과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市立大學이 그 동안에는 아주 어려운 學生으로서 서울大學이나 延大, 高大에 가지 못하는 바로 그 다음 學生들이 어렵기 때문에 公納金이 싼 大學을 찾다 보니까 市立大學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地方學生들, 地方의 우수한 學生들이 많이 市立大學에 오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래서 서울出身 學生들은 相對적으로 地方出身 學生들보다 저희 大學의 경우에 공부를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에는 조금 쳐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市長福祉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高等學校를 나온 學生들을 중심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30%에 접하는 것도 아마 그런 까닭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實驗實習機資材의 확보율이 37.3%밖에 안 되는데 確保率을 높여서 敎育의 質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李載震 委員님께서도 같은 質問을 주셨

습니다만 제가 總長이 된 뒤에 당시 李海元 市長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향후 5년에 걸쳐서 93년부터 60億원의 豫算을 投資해서 實驗實習機資材를 劃期的으로 올리는 計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3年, 今年 2년에 걸쳐서 지금 18.9億원의 豫算을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40億원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 들여서 37.3%를 겨우 끌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3年과 또 이것도 제가 최근에 崔秉烈 市長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IBRD借款이 저희 大學에 22億원어치가 中央政府로부터 配定이 되었는데 市에서 또 肯定的인 對答을 합니다만 결국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텐데 60億원에다가 22億원 借款 支給保證를 市에서 해 주시면 約 80億원 상당의 財政이 實驗實習機資材 擴充에 5年間に 걸쳐서 投資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學校로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今年, 去年에 걸쳐서 저를 비롯해서 工大 學長님을 비롯하신 여러 補職 教授들이 각 企業을 巡訪하면서 企業에 遊休施設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는 쓰지 않는 施設을 教育用으로 寄附를 해 달라고 양청을 해서 삼성전자라든가, 금성반도체 등등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學校 나름대로 努力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車奉五委員님께서 指摘하신 教授確保率이 너무 적지 않느냐, 確保方案을 좀 밝혀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具體的으로 學位라든가, 校內外 博士學位 分布같은 것은 敎務處長이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敎授確保率이 50%대를 넘지 못합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大學이 말씀올린 대로 아직 學事管理權은 教育部의 管理를 받고 있기 때문에 敎授定員을 法定



定員 내에서 教授定員을承認받는 것은 教育部 次元에서 하고 있습니다. 教育部는 教育部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總務處와 經濟企劃院의 協議를 얻어서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大學이 學生 숫자가 激增하는 이 시기는 또 政府 全體로 보면 公務員을 줄이는, 凍結하는 그런 시기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學科를 계속 늘리고, 말씀하신 대로 91年 이후에 學生定員이 50% 가량 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教授定員 配定은 그만큼 받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市 財政으로 教授俸給은 주지만 역시 教授들의 所屬은 또 教育部 所屬이 되어 있는 이런 이상한 體制에 저희 大學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제가 經濟企劃院長官도 만나고 總務處長官도 만나고, 또 教育部長官도 만나서 몇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주긴 주되 總 定員에서 떼어가지고 市立大學 教授는 따로 취급을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이 數年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까 李載震委員님이 指摘하신 것처럼 總長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그런 質問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한 분이라도 더 얻어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자괴의 마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車委員님 정말로 죄송스러운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眞理, 創造, 奉仕의 理念을 내걸고 教育을 하고 있는데 學生들이 들어와서 4年 卒業을 할 때 얼마나 이러한 理念에 接近해 나간다고 總長은 생각하느냐, 참으로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저희들의 4年 教育이 물론 知識과 技術을 조금 더 蓄積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제가 생

각을 합시다만 眞理와 創造와 奉仕라고 하는 저희 大學의 校訓, 敎育理念을 그들이 과연 얼마나 몸에 익히고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總長인 저로서 자신 있게 成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늘 저희들이 애를 씹니다만 눈에 보이는 그런 成果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具體的 方案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에 全國民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奉仕精神, 그래서 奉仕의 實績을 成績으로 하는 問題라든지 이런 것을 벌써 漢陽大學이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구체적으로 實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아까 報告 말씀올린 市立 大學校 敎育改革特別委員會에 각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가 敎育을 통해서 眞理와 創造와 奉仕, 특히 奉仕에 접근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각별히 드리고, 그 結果를 저희들이 實行에 옮길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敎授論文의 質的向上 方案에 관해서 말씀 올리면 결국 敎授論文의 質的向上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敎授님들에게 충분한 研究費와 研究施設을 提供해 드려야 되는 것이 第1의 先決課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敎授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敎授님들에게 質 좋은 論文을 쓰시도록 제가 督勵하는 것보다 먼저 이 분들에게 훌륭한 論文을 쓰실 수 있도록 많은 研究費와 施設을 갖춰드려야 하는 것이 저의 1次的인 責任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督勵와 더불어 저 스스로 열심히 努力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朴善童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셨습니다만 綜合講義棟과 寄宿舍의 設計 事故移越된 理由를 說明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具體的인 理由는 施設課長이 나중에 說明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본래 저희들이 委員님들 다 아시는 사정입니다만.....

○吳柳根 委員; 總長님, 實務課長이 答變할 수 있는 것은 實務課長이 答辯하도록 하시고 重複을 좀 피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綜合講義棟하고 寄宿舍를 사실은 今年度에 豫算 配定을 받아서 着工을 하려고 豫定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市豫算 事情으로 昨年 豫算審議에 들어가 지 못했고 今年에 겨우 綜合文化館이 講義棟으로 變更이 돼 가지고 여러 委員님들께 審議를 해 주십사 하고 올라가 있고 寄宿舍는 今年에도 反映이 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李載震 委員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敎員確保關係는 말씀 올렸고 다른 것은 吳副議長님 말씀대로 圖書館長과 敎務處長이 答辯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仁雨 委員님 質問하셨습니다만 西歐圈大學과 姊妹結緣이 아직 안 된 理由는 무엇이나, 특별한 理由는 없습니다. 그래서 今年에도 불란서의 돌르즈르 미라이大學하고 姊妹結緣을 推進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來年 以後로 저희 大學의 豫算 事情도 있고 그래서 延期가 됐다, 특별한 理由는 없고 앞으로 西歐圈 大學하고도 交流를 할 計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吳副議長님께서 質問해 주신 그 問題는 學生處長께서 市費·장학금 關係를 責任지고 계시기 때문에 答辯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答辯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部分은 實

務處長, 또 局長을 대신해서 實務課長들이 報告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수고하셨습니다.

○孫馥 委員; 總長님 제가 한 가지만.

물론 象徵的인 質問이고 象徵的인 答辯이겠습니다만 大學設立 運營은 地方自治團體長이 지금 말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 總長님께서서는 하나의 教育을 擔當하고 계시는 立場에서 大學設立은 教育法 第8條를 보면 國家와 人類 社會의 發展에 기여한 필요한 人材를 養成하기 위해서 大學設立이 되어 있는데 地方自治團體가 大學을 設立한 目的이 무엇인지, 물론 總長님께서 教育者的인 立場에서 見解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地方自治團體가 특히 大學을 設立해서 運營하고 있는 것은 다른 大學이, 孫馥 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人類文化 發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人材를 養成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市立大學도 물론 그런 目的은 같이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地方自治團體가 豫算을 들여서 運營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市의 發展을 위한, 市의 필요한 人材를 養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理由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市民들을 위해서 조그만 事業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地方自治團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人材를 배양하기 위해서 다른 大學하고 좀 다르게, 가령 都市環境學科라든가, 都市計劃學科라든가, 環境園藝學科라든가, 都市工學科라든가 이런 學科들을 따로 運營하고 있고, 또 今年에도 都市工學科에 수돗물 關係를 특히 專門的으로 다룰 人材를 養成하기 위해서 30名의 水道工學專攻 學生을 募集하도록

認可가 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敎務處長 金昌碩; 敎務處長입니다. 總長께서 全般的으로 答辯해 주셨습시다만 部分 部分 제가 좀 補完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事項은 孫馥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市政發展에 기여한 事項과 앞으로의 方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實驗實習機資材에 관한 상세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車奉五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敎授確保 問題, 이 問題는 李載震委員님께서도 같이 質問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學位所有者, 學校別 出身, 또 敎授의 採用分野 이런 內容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敎授의 研究 質的 向上을 위한 앞으로의 方向 같은 것이 部分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順序는 제가 便宜上 바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孫馥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總長께서도 包括적으로 答辯해 주신 市政發展에 크게 기여한 事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今年度に 市費研究 課題가 35件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件이 市政關聯 課題이고, 10件은 市로부터 提案을 받은 課題입니다. 市로부터 提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敎授들이 택하는 方式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課題 가운데 10件이 採擇이 됐고 市에서 提案하지는 않았습시다만 敎授들이 스스로 提案한 研究 課題가 한 5件 정도는 적어도 市政과 밀접하게 關聯된 分野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總 35件 가운데 15件이 되겠습니다. 이 問題를 서울시와 協의를 하는 過程에서 좀더 參與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方案을 講究하고 있습니다.

昨年과今年の 경우는 市에서 研究主題를 먼저 提案해 주셨 습니다만 來年度부터는 저희大學이 먼저 能動的으로 教授님 들에게 市政關聯 課題를 目錄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 와 협의해서 서울시의 趣旨라든지 어떤 要求에 맞는 課題를 提案해서 採擇하도록 이런 方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昨年과今年까지는 市에서 주는 課題 중에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택했습니다만 來年度부터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各 學科에 市政關係 課題를 提案토록 해 가지고 그 중에서 市가 選擇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教授確保率과 관련된 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大學의 法定定員은 288名이고 教育部承認人員은 166名입니다.

여기에서 法定定員이라는 것은 學科가 생겨서 그것이 4學年 學生까지 다 찼을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한 모든 教授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法定定員입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39 個 學科의 288名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承認人員은 이 중에서 新設學科의 경우는 현재 1 學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2·3·4學年の 경우는 빼고 그 뿐만 아니라 法定定員보다도 조금 減少해 가지고 教育部에서 認可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여러 가지 現實的인 與件 때문에 法定定員보다 조금 줄여서 認可定員, 承認人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66名이고 그 중에 현재 우리 大學은 148名이 現定員입니다만 來年 2月末까지 18 名을 募集하면 承認人員 166名을 다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法定定員에 비해서 우리 大學에 教授確保率이 낮은 이유는, 말하자면 166名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承認人員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57%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新設學科가 91年度부터 94年 사이에 10個 學科와 1個 專攻이 4年 동안에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91年度에 된 學科의 경우는 4學年이 되겠고 그밖에 3學年, 2學年, 1學年 이렇게 돼있는 學科들이 많습니니다.

그래서 10個 學科가 過去 4年 동안에 新設이 됐습니니다만 教育部로부터의 定員認可는 92年度에 2名, 93年度에 7名, 今年度에 9名 이렇게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過去로부터 누적된 부족분에도 最近에 10個 學科가 新設됨에 따라서 아직 T/O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을 합해서 현재 166名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來年 2月末이 된다 하더라도 法定定員에 비한다면 57%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를 打開하기 위해서는 아까 總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教育部에 定員 認可權을 行政改革刷新委員會에서의 建議처럼 우리 市立大學에 경우는 조금 예외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措置를 계속 建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車奉五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學校의 教育目標에 대한 어느 정도를 充足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까 總長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니다만 조금만 補充해서 제가 최근에 教育의 충실도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진지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學生運動의 퇴조로 인해서 授業이 충실히 履行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祝祭를 했습니니다만 과거 같으면 祝祭

를 할 경우 2,3일은 보통 非公式的으로 休講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今年의 경우는 全員 授業에 들어와서 100% 授業을 進行을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中間考査 期間을 한 1週日 정도를 별도로 뒤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試驗만 보고 授業은 進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昨年度부터 中間考査 期間에도 1週日에 한 科目當 3 時間의 時間이 있습니다.

時間이 있기 때문에 1時間만 試驗을 보고 나머지 2時間은 授業을 進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에 16週 이상 授業期間가운데 國慶日 같은 경우에는 法定 公休日에 休講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國慶日에 해당되는 休講에도 나중에 補講을 해서 반드시 16週 이상을 채우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에 비교한다면 學生들의 授業量은 많이 向上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教授들의 質的 向上을 위한 方案은 總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支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資金改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식년제를 좀 더 확대해서 實施하고자 합니다. 昨年까지만 해도 안식년 教授에 대해서는 별도 研究費는 支給하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만 今年度부터는 期成會費에서 1入當 500 萬원씩 研究費를 支援해서 안식년 중에 海外에 나가는 경우도 좀 보태서 研究에 쓰시도록 그렇게 支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研究費도 앞으로의 趨勢가 差等支給하는 이런 趨勢에 있기 때문에 教授님들의 自救努力도 활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또 市政研究課題도 今年度の 경우 한 6億원 정도를 별도로 策定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연구프로젝트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實費를 支援해 주도록 이렇게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또 大學改革研究委員會에서도 여러 가지 方案을 講究 중에 있습니다. 教授論文이 현재 몇 편인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며칠 있어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今年度 11月末까지 教授님들의 研究資料를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統計는 한 12月初만 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問題는 추후에 정확한 資料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車奉五 委員님의 教授들의 學位所有 現況이라든지, 出身大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教授의 出身大學은 편의상 학부를 어느 大學을 卒業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把握해 봤습니다. 總 148名 가운데 서울大 出身 82名으로 55.4%입니다. 그 다음에 本校 出身이 9名으로서 6%가 되겠고, 高麗大學 出身이 9名으로서 6%, 延世大學 出身이 9名으로서 6%, 漢陽大學 出身이 10名으로 6.7%, 弘益大學 出身이 4名으로 2.7%가 되겠고, 그밖에 한 두 분씩 이렇게 나온 大學들이 있습니다. 합하면 기타가 25名으로 16.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學位所持 現況을 보면 總 119名이 博士學位를 所持하고 있습니다. 이중 國內博士는 74名이 되겠고, 國外博士는 45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9名은 碩士學位를 所有하고 있습니다. 國內에서 21名, 國外에서 8名 해서 碩士學位 所持者가 29名, 주로 藝能系列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李載震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전임교원의 新規採用

應募分野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總 17個 學科에 걸쳐서 18名을 採用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마감단계에 와 있고, 來年 2月末을 目標로 해서 審査를 推進할 計劃입니다. 採用分野는 都市行政學科에 都市自治論과 都市政策論 두 分野이고, 法學科에 刑事法, 經營學科 財務管理分野, 稅務學科에 稅務政策, 情報管理學科에 情報技術, 土木工學科에 水門學, 建築工學科에 建築設計 및 現代建築論, 電子工學科에 마이크로과工學, 精密機械工學科에 메뉴팩츄어링, 制御計測工學科에 시스템工學, 半導體工學科에 아놀로그 VLSI라고 해가지고 半導體 設計에 該當하는 分野입니다. 材料工學科에 電子세라믹스, 造景學科에 公園 및 都市環境設計, 電算統計學科에 應用統計學, 物理學科에 重力 및 場論, 그 다음에 生命科學科에 分子生物學 및 免疫學, 哲學科에 分析哲學 等 17個 學科에 걸쳐서 18個 專攻分野를 公採 公告를 했습니다.

다음에 孫馥 委員님과 李載震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실험실 습기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大學의 實驗實習機資材의 保有現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額 換算했을 적에 30.8%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施設基準令, 施設基準에 實驗實習機資材 基準이 있습니다.

基準에 포함된 것만 그렇습니다. 기준 외에도 約 802점에 29億 5,000萬원에 該當되는 金額을 基準外 資材로 保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基準內에 더하지 않고 基準外를 더하느냐 하는 그런 疑問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基準自體가 요즘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基準內에만 하다 보면 급변하고 있는 電子工學이라든지 이런 分野에 있어서 確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分野에 確保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30.8%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38%로, 우리가 특히低調한 理由는 아까 말씀드린 敎授確保와 마찬가지로 新設學科가 최근에 지난 4年 동안에 10個 學科나 된 데에서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新設學科가 갑자기 많이 생기다 보니까 實驗實習機資材 確保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이런 점이 實驗實習機資材 確保率이低調한 理由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족되는 實驗實習機資材를 擴充하기 위해서 서울시 一般會計에서 아까 總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每年 19億원 내지 20億원 정도를 5個年에 걸쳐서 하게 되겠고 지난 7次 IBRD國際借款을 한 6億 5,000萬원 정도를 해서今年度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次 IBRD가 敎育借款에서 22億원 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擴充하게 된다면, 또 持續的인 投資를 한다면 99年度까지는 基準內 實驗實習機資材를 基準으로 해서 한 90%까지는 確保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이 됩니다.

저희 大學이 98年度에 大學綜合評價를 받는 해입니다. 따라서 綜合評價를 받는 他 大學 水準은 넘도록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함으로써 해서 저희 大學이 좋은 評價를 받도록 최선의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敎務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車奉五 委員; 追加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敎授님들 採用할 때 그 基準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務處長 金昌碩; 우선 藝體能系를 제외하고는 博士學位 所有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專攻分野와 저희가 審査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專攻分野를 우선 公告를 하게 되는데 專攻分野는 學科에서 필요한 分野를 저희 大

學本部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專攻分野를 新開에 公告를 해서 專攻分野와 관련된 사람들이 일단 應募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應募된 사람들이 과연 專攻分野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審査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단계에서는 專攻分野와의 合致與否 이것을 1次的으로 審査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專攻審査는 學科教授 뿐만 아니라 外部에 그 分野에 저명한 教授도 參與해서 專攻 適否審査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相對的인 評價를 하게 되겠습니다. 應募된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研究實績이나 이것이 가장 優秀한가 하냐는 그런 問題와 또 하는 公開講義를 하게 됩니다. 公開講義를 통해서 講義能力같은 것도 참작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總長님께서 面接을 하게 되십니다. 面接한 결과도 참작이 되겠고, 이런 등등 세 가지 정도의 審査基準에 의해서 採用을 하게 되겠습니다.

○車奉五 委員; 그러면 審査委員會를 별도로 構成해서 審査를 하게 됩니까?

○敎務處長 金昌碩; 그렇습니다. 別途로 構成해서 하게 됩니다.

○事奉五 委員; 그러면 審査委員會들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敎務處長 金昌碩; 學科의 敎授님들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車奉五 委員; 本校의 敎授를 주로 해서 합니까?

○敎務處長 金昌碩; 네, 그렇게 하면서 敎授數가 적은 學科라든지, 新設學科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外部審査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車奉五 委員; 外部敎授들을 審査委員會로 委囑할 計劃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상당히 신중하게, 教授의 質을 높이는 데는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된다. 基準과 정말 客觀性이 있고, 정말 人材를 역시 教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教授가 많이 있는 學校가 유능한 大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次元에서 굉장히 教授 한 분, 한 분 모실 때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아주 實力本位로 모셔주기 바랍니다.

○敎務處長 金昌碩; 車委員님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공정한 審査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敎授採用問題인데 아까 學科에서 學科敎授님들이 채점을 해서 採用을 하는데 아마 가장 점수를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市立大야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른 學校를 볼 것 같으면 아주 學緣에 대해서 절실히, 學緣이 아니면 도저히 아무리 實力이 있더라도 어떤 곳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런 問題가 있다는데 이것은 정말로 處長님들은 물론 總長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야지, 꼭 學緣으로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부족한데도 學科에 一任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금 방금 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한 問題인줄 압니다. 敎授가 유능한 사람이 採用되어야지 學緣으로 採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學生處長 朴載福; 學生處長 朴載福입니다. 學生處에 관한 데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質問해 주신 委員님들의 順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李永輔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食堂施設問題, 이런 것은

학생복지 차원에서 항상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施設投資로 6,700萬원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廚房器具, 그 동안에 좀 미비 된 器具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廚房器具 設置를 위해서 配食콘베어라든지, 消毒器, 가스레인지 이런 것을 購入하는데 5,400萬원, 그 다음에 學生食堂 食卓을 완전히 交替했습니다. 의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1,300萬원 해서 6,700萬원이 投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從業員 人員의 投入에 대해서는 食堂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賣店은 工產品이라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販賣로서 기계적인 要員입니다. 그래서 賣店은 극소수 만으로도 충분히 일이 됩니다만 食堂에는 한 學期 중에 1日 平均 流動人員이 한 4,000餘 名이 됩니다, 學生들 이용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調理라든지, 配食部 窓口에서 人員이 상당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2名이 投入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지 많은 쪽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永輔 委員; 도중에 많은 쪽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쪽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基準에 의해서 그래요?

○學生處長 朴載福; 실제 일을 해 보니까 일의 量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이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人員을 더 補充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실정까지 나옵니다.

○李永輔 委員; 補充시켜 주고 싶은 것이 다 運營者들의 말이에요. 여기에 100名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100名 넣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食堂을 보니까 메뉴의 種類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學生들이 다 갖다 먹고 갖다 놓아요. 그러면 處長님께서도 軍隊生活 해 보셨지만 軍隊食堂은 그보다 더

많은 人員이 다녀가요. 軍隊에다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軍隊에다 비교를 하나면 軍隊도 자기가 갖다 다 자기가 하나까. 그럴 경우 軍隊의 中隊라든가, 大隊라든가 그런 食堂과 비교했을 때 이 人員은 많은 거예요.

○學生處長 朴載福;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아침 9時부터 配食이 되면서 저녁 6時, 7時까지, 좀 바쁠 때는 7時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크가 되는 時間이 점심시간 前後입니다. 그래서 그 時間帶에 學生들이 몰립니다. 몰리다 보니까 22名이지만 몰리는 時間帶에 活用하다 보니까 人員이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學生 줄 서는 것이 상당히 길게 서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永輔 委員; 그러면 밀려 봤대자 여기 收容人員이 400名이예요.

○學生處長 朴載福; 그런데 실제 밀리는 時間이 한 1時間 내지 2時間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時間이 400名이라고 하지만 流動人員이 많기 때문에 실제 하루에 4,000名이상됩니다. 실지 이용이요.

○李永輔 委員; 收容人員이라는 것은.....

○敎務處長 金昌碩; 座席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永輔 委員; 글썄, 座席數 아니예요. 그러면 400名 중에 또 몇 명이 나가야 몇 명이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學生處長 朴載福; 그러니까 座席이 400名이 되지만 人員은 훨씬 많죠. 계속 座席을 이용하기 때문에.

○李永輔 委員; 글썄, 몇 천명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座席數로 따지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해 가지고 한 면이 있는데 分析을 해 봐 가지고 調整할 수 있으면 調整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永輔 委員;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런 감이 든다 하는 얘기니까 總長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學生處長 朴載福;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孫馥委員님께서 장학금 關係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학금 種類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시장장학금, 市長福祉장학금, 배봉장학금, 그 다음에 總長장학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울市民의 大學인데 서울市民 出身 子弟한테 우선적으로 좀 줄 수 없을까 하는, 돌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성질상 優秀學生을 確保하겠다는 하는 차원에서 入試要綱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種類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市長장학금이라고 하면 各 學科, 學年內 成績 最優秀者 1名씩 선발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울市 出身 學生 같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各 學科, 學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他道 出身이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市長福祉장학금, 이것은 전부 우리 서울市 出身 學生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孫馥 委員; 그런데 最優秀學生의 장학금이 왜 市長장학금으로 名稱을 명명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學生處長 朴載福; 名稱은 다른 名稱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 檢討해 보겠습니다.

우선 옛부터 市長장학금이라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



로 쓰고 있습니다.

○孫馥 委員; 市에서 設立했다고 市長장학금이라고 했는지.....

○敎務處長 金昌碩; 市에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朴善童 委員; 제가 또 한 마디 여쭙보겠습니다.

市長福祉장학금은 지금 서울시 學生들에게 전부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統計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學生處長 朴載福; 그것은 이따가 答辯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長福祉장학금은 그런 성격이고, 배봉장학금은 이것 역시 優秀學生 誘致目的에서 入學時에 선발이 됩니다만 이것은 4年 동안에 登錄金 免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在學 중에 成績이 B+, 다시 말해서 評點 3.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學生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市出身 學生만으로는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總長장학금, 이것은 總學生會長이든지, ROTC 名譽 委員長이라든지, 新聞社 編輯局長, 放送局 實務局長 등등 學校 發展에 學生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學生들을 상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昨年까지는 平均 2.5 이하 成績의 學生은 주지 않았습시다만 今年은 좀더 강화시켜서 3.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總長장학금은 숫자가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격상 市出身 學生에게만 줄 수 없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孫馥 委員; 무조건 市出身 學生들에게 많이 주자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제 質問한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장학금 名稱이 자꾸 서울시 뭐 이

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成績優秀한 學生 장학금이 市長장학금인지 사실 몰랐거든요. 市民의 子女가 市長한테 받으면 더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學生處長 朴載福; 그 名稱은 檢討해 가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善童委員님께서 역시 말씀하신 市長福祉장학금, 이것은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資料에 잘못됐습니다. 受惠人員 88名이 전원 서울市 所在 高等學校를 卒業한 學生에게 支給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資料에 미스프린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總計도 역시 서울學生 人員이 1,010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72名으로 바뀌야 되겠습니다.

○朴善童 委員; 글썄, 市長福祉장학금이 서울學生에게만 전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統計가 틀리게 나와서 이것이 疑問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제가 質疑를 한 것입니다. 答辯 잘해 주셨어요.

○學生處長 朴載福;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吳柳根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市費學生 關係입니다.

市費장학금은 옛날 서울市の 人力需給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採用이 되면 卒業 後에 7級으로 特採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市에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全員, 全學科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學科에서 선발이 되는데 선발이 1學年 入試때 주로 成績優秀者에 대해서 선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學生이 卒業 후에 진정

하게 公務員으로서 適性이 맞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에서 자기가 실제 들어올 때 1등으로 들어왔는데 卒業 後에 市の 7級으로 採用되는 것보다도 一流企業體에 가면 더더욱 待遇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發給 이후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고, 또 미리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義務勤務期間이 8年입니다. 8年이기 때문에 8年 동안에 勤務를 처음부터 안할 때는 그에 대한 還收를 하게 되고, 또 勤務期間 중에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남은 期間을 月數로 計算해서 還收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總人員이 397名이 선발됐는데 현재 在學生으로서 34名, 그리고 서울시에 任用된 사람이 274名, 그 다음에 任用 後에 포기했다든지, 免職했다든지, 軍入隊 등으로 해서 89名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고, 그만두는 사람에 대해서 還收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역시 그 對策으로서 本人이라든지, 保證人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告知書 및 督促狀을 發付해 가지고 還收토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全額 還收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分納해서라도 還收措置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時間은 걸리겠지만 還收되는 것은 전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還收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室長 崔良秀; 企劃室長 崔良秀입니다.

제일 처음 李永輔 委員님부터 質疑하신 주요한 大學의 관심사에 대한 答辯은 總長님이 중요 부분을 言及을 해 주셨습니다.

다. 저희들 企劃室에 關聯해서는 金仁雨 委員님께서 提示하신 質疑로서 현재의 14萬餘 坪의 教育施設與件이 大學의 運營規模로서 妥當한지 하는 問題와 學術交流가 東歐圈에 치중된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하는 問題와 현재 저희 大學發展基金의 內譯과 規模를 質疑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저희 大學캠퍼스는 14萬餘坪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 大學自體로서는 10個年 大學發展計劃이라든지, 中長期發展 計劃案 등에서 현재의 施設與件 規模가 21世紀 가까이 될 경우에 總 入學人員이 1년에 2,000名 규모로 될 때는 현재의 캠퍼스 敷地가 不足하다는 診斷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大學의 業원사항으로 되어 있는 醫科大學 設立設置와 같은 것이 可能할 시점에는 다른 곳에 第2의 캠퍼스 敷地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研究方案들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91年 申總長 赴任 이후 學生數가 한 400餘 名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對應한 教育施設 與件을 갖추기 위한 作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來年度에 지금 現在 10億餘원이 工事着手費로 計上이 되어서 市議會의 審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市議會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大學의 學術交流가 東歐圈에 치중된 것은 당시 90年 초부터 동·서독 통일뿐만 아니라 東歐의 民主化나 開放化 물결이 集中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總長, 企劃室長團이 訪問을 하면서 거기에 自然히 關心을 가지셨기 때문에 폴란드하고 헝가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大學의 學術交流原則은 서울市가 姉妹友好都市로 맺고 있는 大學과

앞으로의 國際交流學術을 해야되겠다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東京都立大學과 北京聯合大學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大學研究發展基金 進陟狀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0億원 規模로 잡고 있습니다만 大學自體의 募金計劃은 그 중에 5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5億원은 서울市の 財政的 支援을 기대하는 金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億원은 아까 總長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大學이 앞으로 98年度에 大學教育協議에 의해서 저희 大學에 全體 綜合評價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推進하는 사업 중에 저희들 원래의 綜合文化館이라든지, 實驗棟 竣工이라든지, 法政大學館 設立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事業들이 98年 이전에 96年, 97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98年度에 綜合 評價 때문에 그렇게 計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自體基金 5億원 募金額數中에 현재 確保된 金額은 期成會 豫算으로 1億 9,000餘 萬원이 지금 募金이 되어 있고, 대여·장학기금으로서 그 동안 回收된 金額 중에 2億 4,000餘 萬원이 確保가 되어 있습니다. 總額 4億 3,000萬원인데, 저희 大學은 이런 大學發展 基金을 財團法人으로서 設立을 하고자 推進을 해 왔습니다. 현재 財團法人 서울市立大學校 發展基金設立에 대한 것을 서울 市議會 文化教育委員會로 협조를 부탁을 해서 委員長님께서 理事로 취임을 해 주시겠다는 승락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市 本廳에서 이러한 學校에 財團法人 設立에 그 必要性, 運營方案, 獎學事業의 支援 등 諸般 事項에 대한 다각적인 檢討를 할 時間을 달라라고 해서 市政開發擔當官室에서 지금 檢討 중에 있는 것을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經理課長 趙全文; 經理課長 趙全文입니다. 李永輔 委員님께서 民間人 營業者 賃貸現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學校에서 民間營業者 賃貸한 것은 5個 施設입니다. 복사실, 이발소, 서점, 도서관 매점, 안경점 契約方法은 처음에 입점할 때에는 이 5個 營業者에게 전부 公開入札로 입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契約期間은 보통 1年 단위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公開競爭으로 입점한 후 그 다음에는 緣故權을 認定해서 隨意契約으로 1年씩 다시 契約을 했습니다. 복사실의 경우에는 95年 2月 22日까지가 契約期間이며 使用料는 278萬 2,000원입니다. 이발소는 95年 3月 30日까지가 만기이며 使用料는 176萬 8,000원입니다. 서점의 경우에는 95年 8月 7日이 만기이며 使用料는 321萬 2,000원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매점의 경우에는 95年 9月 21日이 만기이고 使用料는 4,000萬원입니다. 안경점의 경우에는 95年 11月 17日이 만기이며 使用料는 90萬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現況 말씀드렸습니다.

○李永輔 委員; 使用料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1년치 使用料를 先拂받습니까?

○經理課長 趙全文; 네, 1年 사용치를 先拂로 받습니다. 이것은 保證金이 아니고 다시 換拂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施設課長 安載赫; 施設課長 安載赫입니다. 먼저 質問順序대로 李永輔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하겠습니다. 李永輔 委員님께서 綜合 講義棟 및 寄宿舍建立事業費 算出內譯 및 坪當 單價가 높게 算定된 이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質疑를 해 주셔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니다.

算出内譯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算出内譯은 綜合講義棟은 總 事業費 72億 8,600萬원으로 用役設計費가 1億 300萬원 기 投資 完了되었고 施設費는 67億원, 責任監理費가 4億 7,100萬원, 施設附帶費 1,200萬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事項은 責任監理費가 올해부터 50億원 이상 工事に 適用해야 하는 建設業法上에 強要規定입니다.

○李永輔 委員; 잠깐만요, 綜合講義棟 純粹 建築費는 얼마에  
요?

○施設課長 安載赫; 純粹建築費는 總 事業費 72億원에서 設計用役費 1億 300萬원을 빼고 施設費만 해서 67億원입니다.

○李永輔 委員; 純粹建築費가 67億원이에요?

○施設課長 安載赫; 네, 施設費만 해서 67億원이고 施設附帶費까지 하면 1,200萬원을 더 해야 됩니다.

○李永輔 委員; 67億원이면 坪當 얼마나 됩니까?

○施設課長 安載赫; 坪當 이것은 제가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봐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事項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寄宿舍는 總 事業費가 58億 3,000萬원으로 設計用役費가 1億 3,000萬원 기이 投資 完了되었습니다. 그리고 施設費가 52億 2,000萬원, 責任監理費 4億 7,100萬원, 施設附帶費 900萬원입니다. 그러면 綜合講義棟 및 寄宿舍의 坪當 建築費가 왜 높게 策定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綜合講義棟을 먼저 說明드리자면 展示場 및 博物館, 國際會議場, 公演場 등의 附帶施設에서 동시통역설비나 무대기계 및 조명장치 등의 特殊設備가 많아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施設

單價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寄宿舎는 장대 建築物에 대한 안전도가 고려되어 가지고 철근량이 增加되었고 아파트에 없는 천정 TEX 및 방음자재인 질섬보드의 特殊한 材料, 냉·난방 設備의 費用, 또 산속에 建築하다 보니까 土木工事 費用이 많이 算定되어 가지고 坪當 單價가 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算定이 되었습니다.

○李永輔 委員; 그것은 말씀이 안 돼요. 냉·난방 안 하는 아파트가 어디 있고, 또 土木工事 안 하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坪當 300萬원 돈이 든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施設課長 安載赫; 냉·난방에 대해서는 제가 是認을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土木工事に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 宅地造成된 데에 비해서는 이 쪽은 완전히 산이기 때문에 산속입니다.

○李永輔 委員; 산속이라도 여기에 가까운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도 산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

○施設課長 安載赫; 그러니까 저는 이것 하나 만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要因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것도 하나의 작은 要因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李永輔 委員; 글쎄, 지금 要因을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說得力이 없어요.

○施設課長 安載赫; 죄송하지만 다음 質疑 나간 다음에 나중에 또 質問 들겠습니다.

그 다음 朴善童 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朴善童 委員; 質疑 答辯 전에 제가 李永輔 委員님의 말씀에 대한 答辯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어요. 施設課長님, 安載赫



씨라고 하셨죠?

○施設課長 安載赫; 安載赫입니다.

○朴善童 委員; 施設費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質問을 하실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 施設課長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施設費에 대해서 施設課長이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施設課長 安載赫;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애초에 委員님들께서 요구하신 資料는 綜合講義棟과 寄宿舍가 아니었고, 애초에 요구한 資料를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朴善童 委員; 애초에 요구가 아니고 施設課長이면 책임 있는 答辯을.....

그리고 坪當價格이 얼마나 물어봤을 때 뭐 두들겨봐야 안다 그것이 말입니까, 施設課長님이? 좀 충실하게 答辯하세요.

○施設課長 安載赫; 제가 알기로는 300餘 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永輔 委員; 아니, 대충 해 보니까 67億원 중에서 約 5億원을 빼더라도 300萬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純粹建築費가요. 그리고 나머지 特殊施設들이 여기에 있어봐야 國際會議場도 있고 그럴 테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이 約 5億원 정도라면 이것 맞지 않아요?

○施設課長 安載赫; 그렇게 委員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設計內譯書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李永輔 委員; 그러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施設課長이 잘 모르니까.

○施設課長 安載赫; 자세한 사항까지 제가 잘 檢討를 해 가지고 李委員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答辯하려고 아까는

計算器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위기상 委員님들께 지루한 감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제 판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永輔 委員;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綜合講義棟에 坪當 347萬 6,000원, 이것에 대해서 純粹建築費하고 또 各種 內部 施設이 있고 機資材가 들어올 텐데 그런 것하고 분류 좀 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學生寄宿舍가 여기 내용을 보면 아파트보다 더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業務報告에 보면요. 宿所, 食堂, 浴室, 圖書室, 세미나室로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圖書室이나 세미나室, 圖書室은 큰 돈 들 것 없어요. 여기 場所들이 많이 있고, 또 세미나室도 크게 돈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아파트는 이것 외에도 많은 施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萬원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296萬 6,000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너무 過多策定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過多策定된 것은 1년에 다 끝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勘案은 돼요. 그러나 이것은 좀 지나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細部的인 것을 좀 보내 주세요.

○施設課長 安載赫; 細部的인 것을 檢討해 가지고 過多策定된 사항에 대해서는 削減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李委員님 補充質疑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다음 朴善童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하겠습니다.

朴善童 委員님께서 綜合講義棟 및 寄宿舍의 設計用役 事故 移越 理由 및 設計變更 내용을 質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善童 委員;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質疑한 것이죠.

○施設課長 安載赫;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짧아서 미숙한 것은 인정합니다. 여기 온 지 2個月밖에 되지 않았습니

다.  
○朴善童 委員; 2個月이고 하루고 정당한 答辯을 해야지 무슨.....

○施設課長 安載赫; 제 나름대로는 성실히 答辯하겠습니다.

93年 6月 寄宿舍 및 綜合講義棟 新築設計 用役 契約을 締結하고 基本計劃을 確定하여 서울市의 建設審議委員會에 基本設計 建設技術 審議를 요청한바 이에 대한 技術設計 補完이 필요했습니다. 94年 工事費 豫算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設計審查擔當官이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한 時間을 가지고 완벽하게 補完할 계획이었습니다. 實施設計에 대한 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補完期間이 約 3個月 소요되어 工期는 더욱 늦어졌습니다. 그 補完內容 중 주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建築分野하고 電氣分野를 나누어서 말씀드리자면 建築分野에 대해서는 綜合文化館에서 防風室, 階段, 엘리베이터실 外部窓, 公演場 構造處理 變更, 寄宿舍에서는 建物配置 修正, 內部空間 平面圖 補完, 宿舍棟과 休憩室 거리 再調整, 외벽 노출 콘크리트 不適合 再考, 장대한 建物에 대한 익스팬션 조인트 設置與否 檢討, 單層 침대를 2層 침대로 變更, 各 層에 炊事施設 設置 要望, 샤워실 및 溫水供給 시스템 補完 檢討, 4人用室은 피하도록 再檢討, 研究室 및 實驗室 配置計劃 檢討, 놀이시설 및 休憩空間 檢討, 騒音防止 施設 再檢討 등이 있고요.

그리고 電氣分野에서는 綜合文化館에서는 수전전압을 애초

에는 3,300볼트로 하려고 했으나 2萬 2,900볼트로 해서 電線을 얇게 하여 豫算節減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面積當 負荷用量을 再算定하였고, 비상 發電機室의 位置 選定을 再檢討했습니다.

그리고 寄宿舍는 各 室마다 컴퓨터 사용을 가능토록 補完하였고, 管理室과 各 室間 인터폰 施設設置를 檢討하였습니다. 各 室 照度 향상을 밝도록 하여 學生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崔沆洛 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李喆鎬 委員長 金仁雨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仁雨; 네, 崔沆洛 委員님 말씀하세요.

○崔沆洛 委員; 事務局長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내가 午前에 議會에 가니까 우리 事務局長이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자리인데도 監查場에 갔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와 보니까 또 議會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어디 간 것입니까? 事務局長 행방을 찾아 주시고, 지금 答辯하는 것이 아주 不誠實합니다. 듣기 거부할 정도로 답답하고 그러는데 總長님은 答辯을 誠實하게 하기 위해서 事務局長을 참석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필코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다면 그것 解明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安載赫; 제 答辯이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敎務處長 金昌碩; 敎務處長입니다.

崔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은 상당히 정책적인 問題이기 때문에.....

○崔沆洛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은 이제야 答辯하십니까?

○敎務處長 金昌碩; 제가 미처 빠뜨렸습니다.

○崔沆洛 委員; 그래서 내 質問에 대한 答辯이 안 나와서 물어봤는데, 고의적으로 빼먹은 것 아닙니까? 뜻이 깊은 마음에서 일부러 이것 하나만 質問을 드렸는데.

○敎務處長 金昌碩; 아닙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정책적인 問題이기 때문에 제가 答辯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個年 投資計劃은 李海元 市長님 在任時인 1992年度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93年度부터 97年度까지 投資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습시다만 그 이후 市長님들께서 자꾸 바뀌시고 이런 과정에서 그 계획이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例가 寄宿舍와 綜合講義棟이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今年初부터 投資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지체됨에 따라서 94年度 投資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이 자연히 順延이 되는 과정에서 일단 94年度에 投資될 부분이 뒤로 밀리는 그런 問題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기획실장께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98年度에 저희 大學이 大學綜合評價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過慾의 계획을 推進하다 보니까 정해진 目標年度는 98年度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하게 거기다 財源을 配分하는 과정에서 96年度, 97年度, 98年度에 집중적으로 豫算이 配定되는 그런 問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要因입니다. 하나는 既已 投資됐어야 할 것이 밀린 問題하고, 또 98年度에 綜合評價를 성공적으로 받고자 하는 저희의 意慾이 過多하게 표현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崔沆洛 委員;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優先順位해 가지고 여섯 가지 事業이 있는데 이 豫算이 420億원이란

말입니다. 93年度, 94年度, 95年度까지는 아쉬운 대로 별로 큰 豫算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96年, 97年, 98年, 99年 이렇게 해 가지고 93億원, 125億원, 91億원, 50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市立大學校 豫算 配定받을 때 단 돈 1·20億원 추가해서 받기도 힘든데 3·4년에 걸쳐서 수 십억원씩 이렇게 큰 豫算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도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答辯을 빼먹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總長님 任期가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任期 끝나고 나서 아주 豫算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事業을 그 동안에 좀 안하고 任期 뒤로 미룬 감이 있지 않으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왜 이제야 答辯하십니까?

○敎務處長 金昌碩; 절대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沆洛 委員; 豫算이 너무 集中配置되어 있어요, 3,4年 동안에 걸쳐서.

그것 나중에 감당하시겠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朴善童 委員;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어요.

市立大學校 評價時期를 98年度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금 說明을 했지 않았습니까?

○敎務處長 金昌碩; 네.

○朴善童 委員; 그 전에 寄宿舍와 綜合講義棟이 完工될 수 있습니까?

○敎務處長 金昌碩; 내년도부터 일단 綜合講義棟은 投資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朴善童 委員; 寄宿舍는?

○敎務處長 金昌碩; 寄宿舍의 경우는 지금 展望이 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自救策으로 同窓會에다 손을 벌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善童 委員; 이것이 전부 竣工이 돼야 評價를 받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敎務處長 金昌碩;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同窓會까지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市에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사실 寄宿舍라는 것은 반드시 地方學生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大學의 必須基本施設입니다. 예를 들어서 高大 같은 경우는 5,000名 新入生全員을 寄宿舍에다 넣어서 人性教育을 시키겠다는 總長의 발표도 있었습시다만 寄宿舍를 지나치게 地方學生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것보다는 大學의 基本施設로 이해해 주시도록 市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 委員님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同窓會까지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朴善童 委員;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敎務處長 金昌碩; 네.

○委員長代理 金仁雨; 李永輔 委員님.

○李永輔 委員; 아까 總長님 말씀하시는데 敎授研究補助費가 2億 9,517萬원이 未執行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징적이고 그리고 成果給制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좋은 論文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研究費와 좋은 施設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씀도 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제가 성과급제

로 하면 좋은 論文이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좋은 論文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선 研究를 하려면 제일 첫번째 중요한 것이 研究費가 問題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研究費를 支給 안 해 줄 때, 나중에 成果給으로 받을 때 그때까지는 뭘 가지고 研究를 하며, 우리나라 教授님들이 그것을 타기 위해서 研究하는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總長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가 간단히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먼저 崔委員님 質問하신 內容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敎務處長이 說明말씀을 대강 드렸습시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來年 4월에 任期가 끝나기 때문에 그 후에 한꺼번에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指摘하셨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92년에 市立大學이 綜合大學이 되기는 되었습시다만 每年 經常豫算만 支援을 하다 보니까 劃期的인 發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劃期的인 發展을 위해서 集中投資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李海元 市長께서 그러면 한번 計劃을 세워가지고 가져와 보라, 93년부터 5個年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寄宿舍도 짓고 또 綜合 文化館도 짓고, 法政館도 짓고, 第2實驗棟 짓고 하는 計劃을 갖다가 市長께 提出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대로 한번 推進해 보자, 그래서 제가 集中 投資計劃을 市로부터 承認을 받았다 해서 참 學生들도 좋아하고 또 教授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1次年度에는 예정대로 寄宿舍 設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綜合講義棟도 設計도 들어가고 해서 그것이 今年에 竣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設計가 竣工이 되었으면 今年에 着工을 해야



되는데 그 후에 市長께서 바뀌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 의지랄까 하는 것이 본래 저하고 약속하신 市長님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昨年에 제가 事務局長을 데리고 市長님을 수차례 訪問을 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着工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마지막에 昨年에 委員님 여러분들 오셨을 때 그것을 解決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今年에 着工을 못하고 또 새로 豫算을 策定하는데 今年에 겨우 綜合文化館을 講義棟으로 바꾸어 가지고 일부 反映을 시켜주겠다, 市 豫算當局에서. 그래서 約 10億원 상당의 着工費가 綜合講義棟에 대해서만 來年 豫算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寄宿舎에 관해서는 市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는 합니다만 市立大學에서 꼭 寄宿舎를 지어야만 하는 것이냐 地方 學生들을 위해서, 그런 意見도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敎務處長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지금 寄宿舎라고 하는 것이 꼭 地方 學生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學生福祉施設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來年 豫算에 反映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참 죄송스럽지만 同窓會에서라도 좀 着工이 되면 또 市에서 完工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現·前任 同窓會長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체가 되고 해서 저로서도 이런 個人的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在任中에 그래도 綜合講義棟하고 寄宿舎는 좀 着工이라도 하고 물러났으면 제 個人的인 功勞로 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答辯을 피한 것이 아니

고 아까 즉 答辯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吳柳根委員님께서 그런 것은 나중에 具體的인 내용은 該當 部署長이 하도록 하고 總長은 간단히 해라 하셔서 제가 앉아서 듣다 보니까 그 答辯이 없어서 제가 또 나오기는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敎務處長을 불러서 崔委員님이 물으신 이 대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적당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計劃도 사실 저로서는 學校의 發展이라고 하는 것이 豫算權을 가진 市의 의지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來年에 民選市長님이 되시면 그분하고, 總長하고, 委員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市立大學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計劃을 사실은 새로 다짐을 받아야 되는 問題가 아닌가 하는 現實的인 어려운 與件을 호소드립니다.

그 다음에 李永輔委員님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敎授들의 研究論文을 통해서 敎授들을 成果給制로 어떻게 研究意慾을 고취시키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國立大學 總長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成果給制로 하지 말고 劃一的으로 支給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敎育部長官, 또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여러 차례 代表를 보내거나 또 建議文을 보내 가지고 建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國會에서 이 豫算案이 通過될 때 이 부분은 꼭 成果給으로 하는 것을 條件으로 해가지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敎育部로서도 후퇴할 수가 없다.

최근에 敎育部の 입장은 실질적으로는 成果給으로, 公式的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는 것이 어려우면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方案을 좀 마련을 해서 해야 國會에 대한 체면도 서

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해서 教育部에서 許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成果給으로 今年에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다만, 李永輔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것처럼 그런 問題를 勘案해서 상징적인 方案을 찾아보자, 이렇게 저희들 總長들끼리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총에서도 또 全國 教授協議會 總會에서도 成果給으로 하지 말고 劃一的으로 支給을 하도록 해 달라는 建議文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政府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施設課長이 委員님들께 참 答辯드리는데 過程에서 여러 가지로 실례를 저지른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직 어리고 또 저희 大學에 온 지자기 말처럼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제 大學 나와 가지고 技術高試에 合格해서 敎育 끝내고 바로 왔다고 저한테 처음 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 이것저것 모르고 해서 엄숙한 자리에서 실례를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각별히 꾸중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金仁雨; 우선 崔沆洛 委員님께 諒解를 드리겠습니다. 事務局長의 參席與否에 대해서는 事務局長이 宣誓를 하고 600年事業이 내일 하는 行事關係로 우리한테 諒解를 구하고 갔습니다. 이 점을 崔沆洛 委員은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申弘 總長님께서 말씀대로 李永輔 委員님과 朴善童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을 答辯하신 施設課長께서는 앞으로 부실하게 答辯하지 말고 성실하고 성의 있는 答辯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本 行政事務監査 受監을 위하여 申弘 總長님을 비롯한 教授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市立大學校는 서울特別市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運營하는 大學으로서 千百萬 市民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大學이며 國·私立의 여타 大學의 공통된 設立目的外에 都市社會가 要求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라는 設置目的에 부합되어야 하는 특별히 막중한 課題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서울은 世界的 巨大都市로서 國際化, 先進化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交通, 環境, 쓰레기, 水質問題, 基幹施設物의 安全對策 等を 시급히 解決해야 할 많은 問題를 안고 있습니다. 市立大學校 關係公務員 여러분은 이러한 서울市의 당면한 問題를 集中研究하여 劃期的인 代案을 提示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學校施設의 安全點檢에도 유의하여 教授님, 學生들이 마음 놓고 學問研究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市立大學教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市立大學校에 대한 1994年度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42分 監査終了)

---

○出席監查委員

李喆鎬 金仁雨 朴善童 孫馥

梁元模 吳柳根 李永輔 車奉五

崔沆洛 李載震

○專門委員

金長虎

○被監查機關參席者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教務處長 金昌碩

學生處長 朴載福

企劃課長 崔良秀

經理課長 趙全文

施設課長 安載赫